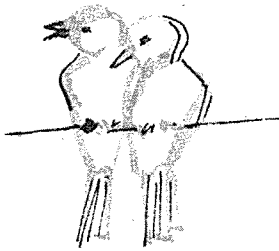


# 성호르몬과 현대 생활



金 英 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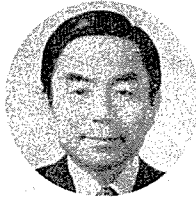
서울의대 비뇨기과교수·의학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현대생활」과 「성」은 밀접불가결의 관계로 발전하였고 「성」이란 비말의 베일에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현되어야 한다는 과감한 풍조가 생겼고 더 나아가서는 「성」이란 조용한 것이 아니라 역세고 사나운 것이어야 한다는 도약적인 변천을 거쳐왔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의상, 미용, 언어, 노래, 춤 등등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대변하여 주고있다. 여기에 성징(性徵)을 가름하여주는 성호르몬에 관하

여 말해보고자 한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남자는 남성호르몬만을 여자는 여성호르몬만을 생산하고 따라서 남자는 남성답고 여자는 여성답게 만들어진다고 믿고있다. 그러나 실지로는 남자도 여성호르몬을 생산하고 여자도 남성호르몬을 함께 생산하고 있는것이다. 다만 이 두 호르몬의 비율이 엄청나게 다를뿐이다. 남녀가 성숙하여지면 남자나 여자나 각각 성호르몬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더욱 남성답고 더욱 여성답게 되어가며 갱년기에 다다르면 성호르몬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소위 말하는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 누구나 이것은 생리적인 현상이라 어찌할수없는 자연의 섭리라고 믿게된다. 그러나 이때도 남성호르몬이나 여성호르몬의 생산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 또는 여성호르몬대 남성호르몬의 비율이 달라지는것뿐이다. 이로 말미암아 신체구조의 기능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일상생활에도 여러가지 변화를 초래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성호르몬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성호르몬도 그의 원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남성이나 여성이나간에 성의욕망을 발동하고 구사함에 있어서 적극성을 부여하는것은 남성호르몬이다. 그러므로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의 비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인지 쉽게 알수있겠다. 「성」에 있어서 남성호르몬은 『능동적으로』 여성호르몬은 『수동적으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젊은세대는 이 특유의 “성”을 서로 부정하여 보겠다는 저항을 느껴 본다. 언어, 용모, 복장 등등에 있어서 성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대성애의 접근을 꾀한다. 즉 뇌하수체-부신-고환(또는 뇌하수체-부신-난소)의 밀접한 자연적인 연관관계를 깨고 인위적인 역행이나 도약을 해보고자 하나 이들은 서로 떨어질수없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의 기능은 항진시키거나 억제 시킴으로서 평형상태를 유지하게 마련이다.

현대생활에 있어서 육체적인 과도한 부담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라고 보통 불리운다) 충격이나 계속되는 억제는 이상 3자의 원활한 상호관계를 깨뜨리고 따라서 개체내의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의 불평형상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성징과 성벽의 조화를 파괴하기에 이른다.

성호르몬의 영향을 매우 예민하게 받는 악성종양(암)이 있으니 현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를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다. 남자에 있어서의 전립선암과 여자에 있어서의 유방암이 있다. 물론 이들이 다 성호르몬의 영향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전립선암에 의한 노로증상

이나 이것이 골격으로 퍼졌을 때의 뼈의 동통등이 여성호르몬 투여로 호전되거나 고환제거로 개선되는 사실이나 유방암에 있어서 남성호르몬 투여나 난소제거로 증상이 호전되는등은 동일한 원리에 의한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잘 이해한다면 정력증강, 원기회복, 노쇠방지등들이 유로 하여 남자에게서 흔히 사용되는 (남용이라함이 옳겠다) 남성호르몬주사나 내복, 또는 각종비타민에 포함되어있는 남성호르몬은 전립선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점 또 여자에 있어서 월경조정, 미용목적, 늙지않겠다는 이유등등으로 사용(남용)되는 여성호르몬이 유방암을 촉진할수 있다는점 등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즉 「현대생활」의 오용이 암을 일으킬수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기억하여야 된다.

남녀에서 흔히 보는 탈모증은 어떻게 보면 현대생활의 부산물이라고 볼수있다. 매독이나 고열등에서 유래하는 탈모는 다르겠으나 심한 고민, 정신적충격등으로 생기는 원형탈모증 (머리털이 둥글게 몽땅 빠진다. 쥐가 뜯은것처럼 엉성하게 빠지는 것이 있으나 이것은 다르다)은 골질 여성호르몬이 포함된 크림을 자주 바르면 잘 재생한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흥미있는것은 머리털은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나 음모나 액모(겨드랑털)는 남성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것이다.